우리나라 여성빈곤 문제의 사회구조적 고찰

안 은 숙
(대구대학교 대학원)

반복, 순환적인 구조의 형성으로 여성들을 사회적 자원배분과 권리에있어 상대적으로 박탈시키고있는 성(gender)에 대한 분석 단순히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차원을 넘어서 논의해봐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적극적 배제와 수동적 배제의 개념을 적용하여 고찰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에서 빈곤발생경로를 분석,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치를 비롯한 사회적 가치배분에 있어 여성이 처해지는 상대적 불평등 구조는 가부장제 가치관이 우선시되어오던 우리사회의 오랜 관행과 사회적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던 우리사회의 근대적 상황과 맞물려 그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 정권에서 표명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 지향과 성장을 위해 도구적 유용성을 지니고 있었던 남성가장 위주의 가부장적 가족구조의 지지체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던 정치적 환경요인 때문이다. 성별분업적인 사회구조와 가부장제적인 특정 가족구조형태가 국가적으로 지지되어왔던 정책적 특성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제한하여 분절적인 이중 노동시장을 형성하게되었다. 또한 가부장제적인 사회가치의 관행적 지지는 여성들을 노동시장에서 주변화시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력의 유연화 현상이 나타나게되었다.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의 기여도가 주요한 척도가 되는 사회보장 체계에서의 권리 또한 제한받게 된다. 이 같은 사회구조는 소득구조에 반영되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별 간의 소득격차가 발생되고 여성의 빈곤현상이 나타나게된다. 더구나 1인 부양자체계가 지배적 유형으로 자리잡고있느 우리나라 가족구조에서 최근 이혼율의 급증 등으로 양산되는 가족의 구조적 다양화와 여성 가구주 가정의 증가현상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빈곤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들은 남성의 임금노동, 남성 시민권에 기반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정책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문제 인식은 매우 희박하여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의 모색 또한 부진하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심각한 빈곤양극화 문제에 당면한 지금 균형잡히고 근본적인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성빈곤에 대한 문제인식과 함께 빈곤문제에의 성인지적 인식틀을 확립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가부장제적 가치관과 남성위주의 자본주의적 사회가치, 경제성장위주의 사회통제적 성장논리가 정책수립의 가치전제로 우선시되어 온 부분들이 재인식되어 여성들의 노동시장진입에 따른 제한과 그에 따른 지지체계부족에 대한 대응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빈곤문제의 구조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